

한국의 모 프로야구 구단에 새로운 외국인 감독이 부임했다는 신문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였으며, 또 야구 감독으로서도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모 프로야구 구단의 새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중 그가 대답한 말 가운데 아주 인상에 남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려고 합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묻기를 ‘새로 부임한 팀을 어떤 팀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서슴없이 대답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본이 충실한 팀을 만들어서 임기내에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의 목표는 프로야구 우승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이 충실한 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 ‘기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어로 ‘basic’이라고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basic’에 충실하게 될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후에야 우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이 충실한 팀으로 만들어가는 그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오늘 신앙과 관련지어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과 기초’는 명사로 쓰일때, ‘fundamental’로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근본적인’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아주 엄격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등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프로야구 감독도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야구를 배우기 시작할 때 습득하는 ‘기초와 기본’에 두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에서도 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바로 본문에 나와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16 절)

16 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감’ (inspiration of God) 이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음’을 의미합니다. (창 2:7) 이를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하나에 그분의 생명의 숨을 넣었기 때문에 성경기록들은 살아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히 4:12)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 되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대로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벧후 1:20,21) 이사야서 34 장 16 절에서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중의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즉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대로 적은 것입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으로 이 계시에는 특별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 66 권이 지난 2천년의 교회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높일때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가 되었으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때 교회도 무시를 당해 왔습니다. 절대적이고 능력있는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높입니다.

## 2.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5 절)

세상에는 아주 훌륭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우리의 지식을 자라게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에는 ‘코란’ 있습니다. 유교에는 ‘논어’가 있습니다. 헤아릴수 없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생과 사의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생명의 가치와 영생을 알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필연입니다. 성경에 ‘한번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한한 생이 두려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불노장생’ 하는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어야합니다.

15 절에 ‘또 어린 아이때 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또 요 5:39 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권위를 철통같이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 3. 성경은 교리와 생활의 표준입니다. (16-17 절)

본문 16,17 절은 성경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 과 ‘표준’ 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되게하는 기준, 즉 ‘Land Mark” (지표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리를 세우는 것도 성경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첫째는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과 그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구원이 중요하니까, 구원에만 너무 강조를한 나머지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화에는 많은 강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66 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책입니다. 세상에는 인간교육을 위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답게 사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세상의 교육은 유한한 세상에서 바른 사람이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육은 헛되고 허망한 데에 소망을 두는 교육이되고 맙니다.(롬 1:18-23) 그 교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교회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 4. 결론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것은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잘 쌓여진 성도 기초가 튼튼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